

옮겨 가는데 충분한 이완을 얻은 후에 행한다. 능동적으로 또는 저항에 대항하여 운동을 하는 능력이 클수록 효과도 길게 지속시킬 수 있다.

IV. 結 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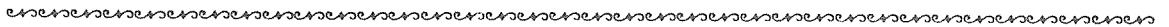
여기서 P.N.F.의 기본적인며 기초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였으나 그 이용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보다 발달과 인간행위에 대한 이론과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운동발달단계에 따른 P.N.F.의 이용(표3 참조)은 다각화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보다 넓은치료영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고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이 자료는 1985년도에 서울 남부지부 등에서 보수교육의 자료로 작업했던 것을 다시 정리한 것임을 밝히며 표3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다음 기회에 회보에 게재할 것을 약속한다.

참 고 문 헌

1. Voss DE: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The PNF method, In Pearson pH, Williams CE (eds):Physical Therapy Servicices in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1976, pp.223~280.

2. Knott M, Voss DE: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atterns and Techniques, New York, Harper & Row, 1968.
3. Bobath K, Bobath B: Cerebral Palsy. In Pearson pH, Williams CE(eds):Physical Therapy Services in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ringfield, IL, Charles I Thomas, 1976, pp.31~180.
4. Sullivan, Partricia E.,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rapeutic exercise, Reston Publishing Company, Inc. A Prentice-Hall Company Reston, Virginia, 1982, pp. 24~39.
5. M.Derna Gardiner,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In the principles of Exercise Therapy London, G.Bell and Sons, LTD, 1963, pp. 78~89.
6. Sullivan, Partricia E.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rapeutic Exercise, Reston Publishing Company, Inc. A Prentice-Hall Company Reston, Virginia, 1982, pp. 128~156.
7. 李載學 譯, 固有受容性神經筋促進法, 高文社, 1978, pp. 145~213.



병원 탐방

주몽재활원 물리치료실을 찾아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참 쇠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덕지구 아파트촌을 조금 지나니 분명 서울의 하늘 아래 이전만 하얀 눈이 포근하게 펼쳐져 있는 눈과 발이 펼쳐진다.

도시의 빌딩 숲에서 어쩔 수 없이 초라해져야만 했던 몸과 마음이 한껏 넓어지는 느낌이다.

주몽 재활원

이곳이 바로 이 조용하고 바람 맑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재활의 터전 지체 부자유자들의 보금자리인 것이다.

연 건평 약 2천여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건물로 된 현관을 들어서자 미리 연락을 받은 최우선 실장님이 반가이 맞이해 준다.

휠-체어를 타고 또는 크리치를 집고 혹은 불편한 몸을 벽에 부착된 손잡이에 의지한채 긴 복도를 오가는 아이들이 맑은 바람 만큼이나 맑은 눈으로 낯설은 이방인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

최 실장님의 안내로 2층으로 올라가니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최 실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물리치료사

와 두 분의 작업치료사 그리고 한 분의 언어치료사 선생님등 모두 일곱 분의 선생님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이곳 주몽 재활원은 6.25사변 당시 혈액 육군 대위로 참전하여 하반신 마비라는 충격적인 전상을 입으신 예비역 육군 대령 주몽 김 기인 이사장님의 깊은 뜻에서 85년 3월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분의 꿈에서나마 달리고 싶은 마음을 재활 사업을 통해 이루어 보려는 깊은 뜻에서 설립된 만큼 모든 시설물은 물론이고 치료사 선생님은 물론 전직원이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잠시 사무실에서 선생님들과 한 잔의 커피를 나누워 선생님들의 안내로 재활원 이곳 저곳을 돌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재활의학과를 비롯하여 정형외과와 방사선과 그리고 약국 등의 의료시설은 물론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상담을 위한 상담실 그리고 직업재활을 위한 금속공예과, 전자과, 양재과 그리고 정규학교 과정의 특수학교와 기숙사 입원실 등을 갖추고 있어 장애인 한 사람이 치료재활에서부터 학교 교육 그리고 직업 재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약 하루 백여명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은 물론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과 대부분의 치료 대상 장애인 환자들이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보이타 치료실을 따로 갖추고 있다.

세 분의 남자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물리치료실은 물론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의 기구들이 신설 재활병원

이란 느낌이 절로 들 정도로 모두 최신형들로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마 전국 어느 물리치료실도 이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라며 너털웃음을 짓는 최 실장님의 너스레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개원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으로 이제는 거의 모든 체계가 이루어졌다며 처음 개원 당시 고충을 먼 옛날 얘기하듯 웃으며 말하는 선생님들의 얼굴엔 어떤 만족스런 피로감이 보이는 듯했다. 처음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서로들 방이 떨어져 있어 아침 인사나 나누자는 의도에서 커피-타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를 재평가 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깊은 뜻에서 설립이 되었고 그 어느 병원이나 재활원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최신형 기구들을 갖추고 있고 또 언제나 공부하며 노력하고 사랑으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이곳 주몽 재활원은 분명 장애인들의 재활의 터전, 그들의 보금자리 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짧기만 한 겨울의 태양이 어느덧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했다.

